

Hana Infinity



2025 November

FX Market Monthly Letter

연구위원 서정훈
seojh@hanafn.com

연구위원 이유정
yjlee.r@hanafn.com

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.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,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



목차

I. 금리	3
I. 달러/원 환율	5
III. 엔/원 환율	7
IV. 유로/원 환율	7

금리

10월 동향

연휴 이후 불거진 미-중 무역 갈등과 미 섀다운 우려 지속 및 지역은행 신용위험 등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. 하지만 한은 금융안정 기조 지속과 국내 3분기 성장 개선, 한미 관세 협정 타결 등으로 상승 마감

연휴 이후 미-중 무역 갈등 재점화와 미 지역은행 신용위험 등이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연준 의장 도버시 언급 등이 금리 하락에 영향

대외 미중 무역갈등과 미 섀다운 장기화 우려 등이 금리하락으로 작용한 가운데, 한은 총재 관세 관련 부정적 수출 우려와 부동산 우려에 따른 금융안정 기조 언급이 금리방향성 상쇄에 영향

국내 3분기 성장 개선 속 한-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 및 연준 차후 통화정책의 매파적 기조 확인 등으로 국내외 금리 상승 추세 확인된 국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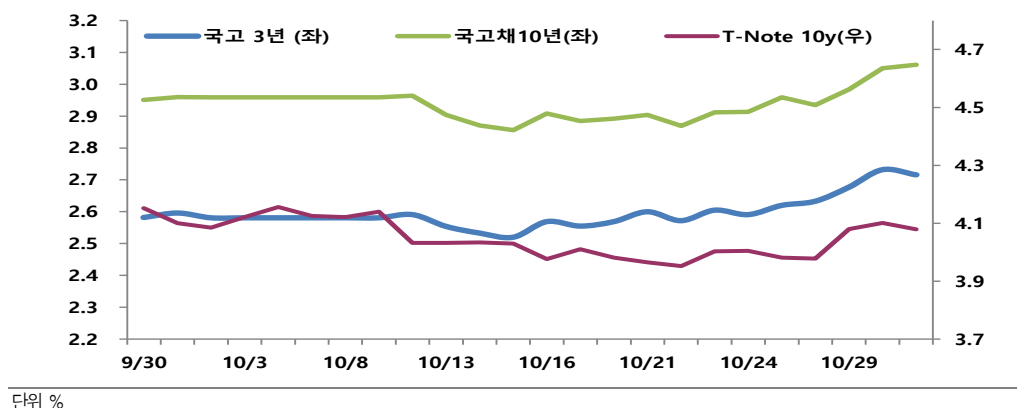
- 10월, 추석연휴 이후, 상승 출발한 국고채 금리는 연휴 간 미-중 무역 갈등 격화와 경기둔화 우려로 하락 전환. 특히, 파월 의장과 연준 인사 노동시장 악화 언급과 지방은행 신용위험 우려 등이 겹쳐짐에 따라 하락세 강화되었지만, 한은 부동산 관련 매파 성향 등이 하단 제한
 - 월 초, 연휴 이후 격화된 미-중 무역갈등 점화와 속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금리 하락 출발. 특히 중국 정부의 한화계열 미국 자회사 제재 소식에 국고채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가 크게 가중
 - 이어, 파월의장의 노동시장 악화 관련 언급 속 미 지방은행 신용위험 우려 등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강화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으나, 한은 금융안정 중시 기조 매파 언급 등이 하단 제한한 국면
- 월 후반 초, 한은의 주택시장 과열 조짐 언급 등 금융안정 중시 기조 재확인 속 상승 후, 미 섀다운 장기화 우려, 미-중 무역 갈등 고조에 하락 전환. 이어 한은 통방문 상 금리인하 기조 확인 영향 반영 후, 한은 총재 수출 관련 부정적 언급에 국고채 금리 하단 재차 제한된 국면
 - 월 후반 초, 한은총재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 과열과 향후 가계대출 불확실성 언급 등이 금리상승에 영향 미친 후, 미 기대인플레이 반영과 섀다운 장기화 우려 등 대외 요인 반영 속 하락 전환
 - 이어, 미-중 무역 갈등 고조되는 영향과 한은 통방문 상 금리인하 기조 확인 등이 하락 추세 유지시켰으나, 이후 총재의 관세여파 등에 따른 수출 관련 부정적 언급 등으로 금리 하락 추세 제한된 국면
- 후반 들어, 국내 증시 활황에 의한 위험선호 영향과 한은의 부동산 중시에 따른 통화 완화정책 제약 인식 속 상승 후, APEC에서의 한-미 관세 타결과 차후 방향성에 대해 매파적으로 평가받은 FOMC 결과 등을 반영하며 상승 흐름 속 마감
 - 후반, 국내 증시 활황에 따른 위험선호 반영과 한은의 금융안정 관련 통화완화정책 제약 가능성에 대한 시장 인식 등으로 상승 전환
 - 이후, 국내 3분기 성장을 개선 흐름 속에 우리나라에 긍정적이었던 APEC에서의 한-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과 연준 매파성향의 10월 FOMC 결과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 상승 추세 속 마감

10월 평균

국고채(3년): 2.60%

T-Note(10년): 4.05%

주요 시장금리 추이



11월 전망

대외적 연준의 단기 매파성향 우위 기조 속 내부적으로도 한-미 관세 협정 타결과 전반적 내외수 회복 기대 등의 반영 요인 등이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	1Q25	2Q25	3Q25	4Q25 ^{F)}
국고채(3Y, %)	2.55	2.40	2.45	2.60

연준, 연속적 노동시장 중시 견지 속 위험관리 차원 인하했으나, 섣다운 지속,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연준 의장이 표명한 점 등은 차기 회의에서 금리인하 기대 차단한 것으로 판단

3분기 국내 경제, 내수 진작, 투자 개선, 수출 호조로 크게 회복. 특히, APEC 한미 관세 타결, 미중 무역 갈등 봉합 속 미 금리인하의 대외 여건 개선에 의한 국내 경기 모멘텀 강화가 금리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11월 국고채(3Y) 금리는 2.65%~2.80%

- 10월 FOMC는 고용안정 중시 속 추가 금리인하 결정. 이에 금리 하방 압력 높아졌지만, 12월 인하에는 섣다운으로 인한 지표 확인 제한, 추가 인하 시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가 높아질 것에 따라 신중한 입장 견지. 이러한 연속적 인하 기대 차단 등은 금리 하단 제한 요인으로 판단
 - 10월 FOMC는 섣다운 이전 데이터 상, 경제 성장 견조함을 시사. 하지만 물가 수준이 다소 높음에도 노동시장 약화 진단하며 25bp 추가 인하. 이 영향은 단기적 국내외 금리 하방에 영향 미칠 전망
 - 12월 인하에 대해 섣다운 관련 지표 확인 제한과 추가 인하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극 경계감을 표명하며 신중한 입장 견지 속 연준 위원들간 이견 등 매파 성향이 여전히 우위에 있을 가능성은 국내외 금리의 추세적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.
- 국내 경제, 소비와 투자 개선 속 수출 호조에 3분기 실질성장률 1.2%를 시현한 가운데, 한-미 관세 타결과 미 금리인하 등의 대외 여건도 국내 경기 모멘텀 견인에 긍정적 영향 미칠 전망이 국고채 금리 하단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 - 국내 경제가 소비, 투자 개선과 수출 호조에 3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.2% 시현한 가운데, 국내 경제 모멘텀 강화 기대 전망 등이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 - 또한 APEC 정상회의에서 한-미간 관세 협상 타결 속 연준 추가적인 금리인하 영향 등도 국내 경기 활성화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이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- 대내 금리인하 필요성에도 무역협상 불확실성과 환율, 주택경기 등 금융안정 중시로 한은 매파성향은 마지막 금통위 전까지 이어질 전망. 여기에 연준 인하 사이클 재개와 시중 유동성 확대에 자산가격 상승 기대 높아짐에 따른 통화완화 부담도 금리인하에 부정적 작용할 전망
 - 국내 성장 회복력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회복모멘텀 여건상 금리인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. 그럼에도 국내 외환시장 불안정성 속 주택경기 등의 금융안정 중시를 이어가는 한은의 매파 성향은 11월 금통위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
 - 여기에 연준 인하사이클 재개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진 점도 통화 완화에 부담 요인인 가운데, 한은 금융안정 기조에 우호적 언급을 한 대통령 발언 등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

상승 요인 vs. 하락 요인

상승요인	하락요인
- 국내 성장 동력 강화, 한-미 관세 타결 등 경제모멘텀에 긍정적 영향 요인 반영 등 - 대외 여건 고려한 금융안정 중시 한은 매파성향 지속 가능성	연준의 인플레이션 상승 제한 전망 속 노동시장 중시 위험관리 차원 금리 인하 지속 여부

달러/원 환율

10월
동향

대미투자 등 한-미 관세협상 불확실성이 원화 약세 자극하면서 6개월 만에 장중 1,440원선을 상회. 이후 예상보다 빠른 협상 타결에도 연준의 매파적 금리인하로 인한 달러 강세에 1,420원대 하락에 그침

미 정부 섣다운 우려 속 달러 약세와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에 장중 1,400원 하회했으나, 추석 연휴 직후 엔화 및 유로화 약세가 견인한 강달러에 큰 폭 반등하며 1,420원대 진입

미-중 무역분쟁과 지역은행 신용 리스크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에 상방 압력 확대되었으나, 강화된 외환당국 경계심리에 추가 상승은 제한

원화 약세 견인한 한-미 관세협상 불확실성 해소되었음에도 10월 FOMC 이후 연준 연내 추가 금리인하 기대 제한된 데 따른 달러 강세에 1,420원선에서 하방 경직적 흐름 시현

■ 월초, 미 정부 섣다운의 경제 영향 우려를 반영한 달러 약세와 외국인의 국내 증시 대규모 매수세에 환율 하락 출발 후 연휴 기간 지속된 글로벌 강달러 일시 반영하며 1,420원대로 급등

- 월초, 미 연방정부 섣다운 개시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달러 약세 자극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된 데 힘입어 환율은 장중 1,300원대 진입 시도하며 하락 출발
- 추석연휴 휴장 이후, 엔화와 유로화가 대내 정치적 이슈로 동시에 약세 보이자 글로벌 강달러 나타난 영향을 일시 반영, 20원 넘게 급등하며 1,420원대 올라섰으나 국내증시 외국인 매수세에 상단 제한

■ 월 중반, 미-중 무역갈등과 미 지역은행 부실 대출 문제 등에 위험회피 분위가 확산되며 상승 압력 받았으나, 외환당국 구두개입에 1,430원대 심리적 저항선 인식 속 상단 제한된 영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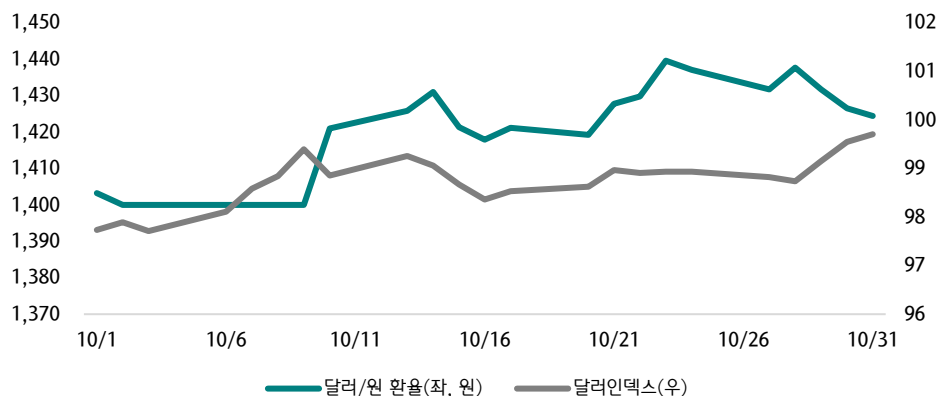
- 중반,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대중 100% 추가 관세 예고 등 분쟁 격화 조짐에 위험회피 심리 고조되며 상방 변동성 확대되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서면서 1,430원선 상단 제한된 영국
- 파월 의장의 비둘기 발언과 한-미 관세협상 진전 기대 등에 약세 폭 일부 되돌렸으나, 미 지역은행 신용 리스크로 위험회피 심리와 다카이지 일 총리 선출 후 엔화 약세가 견인한 강달러에 상승 전환

■ 후반, 한-미 관세협상 경계감에 1,440원대 진입 후 극적 타결되자 하락 전환했으나, 12월 금리인하 기정사실 아니라는 파월 의장 발언에 달러 강세 폭 확대되면서 낙폭 제한된 모습

- 후반, 예상보다 매파적인 금통위에도 대미투자 관련 불확실성 재차 부각되자 1,440원선 상회했으나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과 한-미 정상회담 앞둔 관망심리에 상단 제한되며 1,430원대에서 등락
- 한-미 관세협상 세부내용 합의 소식에 그간의 원화 약세 되돌림 보였지만, 10월 FOMC 금리인하 결정에도 12월 인하 기대 차단한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강달러를 자극, 하방 경직 흐름 속 마감

10월 달러/원 평균환율
: 1,424.8
10월말 달러/원 환율
: 1,424.4

달러/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



11월 전망

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주요국 통화 약세 등 대외적 달러 강세 요인 부각 시 환율 상승 압력이 다소 우위 보이겠으나, 미 관세 리스크 완화 및 한은 매파적 기조 등 원화 강세 여건 반영되며 상단 제한될 전망

평균	1Q25	2Q25	3Q25	4Q25
달러/원 환율(원)	1,453	1,401	1,386	1,420 ^(F)

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스탠스와 미 정부 섣다운으로 인한 주요 지표 발표 부재 등에 연준 통화정책 경로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강달러 자극하며 환율 상승에 영향 미칠 전망

■ 연준 위원들 간 의견 양극화에 연내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재조정된 가운데, 미 경제지표 발표 부재로 정책 경로의 불확실성 부각될 측면이 달러 강세에 힘을 더하며 환율 상승에 영향 미칠 전망

- 10월 FOMC 금리인하는 시장 예상 부합했으나, 파월 의장은 이번 조치가 고용 하방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관리 성격임을 강조한 가운데 연준 내 강한 의견 대립 상황 부각에 연속 인하 기대 후퇴
- 미 정부 섣다운 여파 속 주요 데이터 발표 부재 장기화될 경우, 고용 하방 위험 판단에 어려움 예상됨에 따라 12월 연속 인하 보다 동결 후 데이터 의존적 정책 결정 내릴 가능성에 강달러 지속될 전망

한-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 완화되었음에도 미-중 무역분쟁 리스크 잔존해 있다는 불안감과 엔화 및 유로화 약세 등 대외 요인 영향에 원화의 큰 폭 강세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

■ 미-중 무역분쟁이 일시적 휴전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갈등의 소지 여전히 남아있다는 우려에 시장의 경계심 지속될 전망. 또한, 대내 리스크를 반영한 엔화 및 유로화 약세는 달러 강세 자극할 요인으로 판단

- 미-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상호 보복 조치 1년간 유예하는 등 주요 무역쟁점 합의를 도출. 그러나 이는 일시적 휴전 상태로 갈등 재점화될 경우 안전자산 선호 심리 커지며 환율 상승 압력 확대될 가능성 상존
- 다카이치 일 총리의 재정 확장 및 금융완화 정책 추진 가능성을 반영한 엔화 약세와 프랑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유로화 약세도 달러 강세에 힘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

11월 달러/원 환율
1,405~1,435원 예상

■ 한-미 관세협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국내 경제 체질 개선 기대와 한은 매파적 기조 강화 등 원화 강세 여건 조성된 측면은 대외 요인으로 인한 환율 상승 압력 완화에 줄 것으로 판단

- 예상보다 빠르게 한-미 관세협상 타결된 가운데 대미투자 자금의 시장 외 조달 및 연 200억 상한 설정 등 부담 완화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개선 기대로 원화 체질 강화
- 또한, 10월 금통위에 대한 매파적 평가 속 한국 3분기 GDP 1.2%로 개선 및 관세 불확실성 해소에 연내 동결 가능성에 무게 실림에 따라, 150bp로 축소된 대내금리차 유지 예상되는 점도 상단 제한 요인

상승 요인 vs. 하락 요인

상승요인	하락요인
-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스탠스와 추가 금리인하 기대 약화 - 엔화 및 유로화 약세로 인한 달러 강세	- 한-미 관세협상 합의에 따른 국내 경제 불확실성 완화 - 한은의 매파적 기조 강화

자료: 하나은행

이중통화

엔/원 전망

10월 달러/엔 평균환율
: 151.4
10월 엔/원 평균환율
: 937.4

11월 엔/원 예상범위
: 915~925원

연준, 향후 정책 방향성에 신중함을 보인 기조 속 APEC 미-중 무역 갈등 완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대외적 엔화 약세 지지할 가운데 신임 총리 완화적 기조와 BOJ 신중한 금리 인상도 약세에 영향 미칠 전망

- (엔화 동향) 일 자민당 총재에 다카이치 후보가 당선되자 완화적 금융 여건 조성될 것이라 예상 속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절하, 153엔대에 진입. 중반 들어, 미 지역은행 부실 대출 이슈에 안전자산 수요 증가한 측면이 엔화 강세에 영향 미쳤으나, 다카이치 일 총리 선출로 BOJ 정책 불확실성 부각되자 약세 흐름 재전환. 후반,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강달러 나타난 가운데 예상보다 도비시한 BOJ 회의 결과에 금리인상 지연 전망 부각되면서 154엔선 근접 마감
- (엔/원 전망)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도 향후 정책에 대한 신중하고도 매파적 정책 결정 가능성 영향 반영 등이 대외적 엔화 약세 요인. 여기에 APEC 미-중 무역 갈등 봉합에 따른 세계 경기둔화 우려가 약화된 측면 속 신임 총리의 완화적 재정정책 기조 및 BOJ 신중한 금리 인상 정책 기대 등이 엔화 약세 견인할 것으로 전망
 - 미 10월 FOMC 금리인하에도 향후 정책 방향성 신중함과 매파적 영향 등이 엔화 약세 견인할 대외 요인. 여기에 APEC 미-중 무역 갈등 완화 결과도 경기둔화 우려 약화 속 엔화 약세 지지할 전망
 - 내부적으로도 다카이치 총리의 완화적 정책 기조 우위 예상 속 BOJ 신중한 금리인상 접근 등도 전반적 엔 약세 견인할 가운데, 엔/원 환율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소폭 원화 강세 기조 속 920원 전후 예상

유로/원 전망

10월 유로/달러 평균환율
: 1.1636
10월 유로/원 평균환율
: 1,651.7

11월 유로/원 예상범위
: 1,630~1,645원

유로존내 주요국 정치 불안정성 다소 완화하는 국면 속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양상. 그럼에도 중부유럽 지정학적 이슈의 내재적 유로 약세 견인 및 연준의 상대적 매파 성향 우위 등으로 유로 약세 기조 예상

- (유로화 동향) 미 정부 섣다운 우려 속 달러 대비 유로화 강세 출발했으나, 르코르뇌 프랑스 총리 사임 발표로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되자 가파른 약세 흐름 속 1.15달러선까지 하락. 중반 들어, 재임명된 르코르뇌 총리의 연금 개혁 유예 결정 이후 정부 불신임안 부결되면서 혼란 다소 진정된 영향으로 1.16달러대로 반등. 후반, S&P의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 소식과 연준의 매파적 금리인하에 달러 대비 약세로 재차 전환되면서 1.15달러대로 하락 마감
- 프랑스 정국 불안 완화 기대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관련 공세 등 지정학적 이슈 지속 과정이 전반적 유로 약세에 영향 미칠 전망
 - 여기에 전월 FOMC의 향후 매파적 방향성 속 최근 물가 상승세로 전환한 유로존 인플레이션 상황에도 완화적 기조 유지가 예상되는 ECB기조도 유로 약세 지지할 것으로 예상
 - 유로존 정치불확실성에 대한 일부 완화 기대는 유로 강세 요인이지만,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공세 등 지속되는 중부유럽 지정학적 이슈 등이 유로 약세의 내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 - 여기에 연준 향후 매파 성향이 유로존 인플레이션 추세 전환 가능성에도 ECB보다 강한 점도 유로 약세 지지할 가운데, 유로/원 환율은 관세 타결 등에 따른 상대적 원화 강세 속 1,635원 전후 등락 예상

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(2025년 11월)

SUN	MON	TUE	WED	THU	FRI	SAT
						1 한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미국, 중국 수입품에 100% 추가 관세 부과 예고 정부, 유류세 인하율 축소 [IT] 반도체 10월 수출 데이터 [자동차] 현대차/기아 10월 도매판매 데이터 한 10월 수출/입(YoY +12.6%, +8.2%), 무역수지 [자동차] 미국 10월 판매 데이터
2	3 [휴장] 일본(문화의 날) RBA 통화정책회의(~4) [기업] 노다 코스닥 상장 한 10월 S&P 글로벌 제조업 PMI(50.7) 미 9월 건설지출 10월 ISM 고용, 제조업, 구매물가 S&P 글로벌 제조업 PMI[F] 중 10월 Caixin 제조업 PMI(51.2)	4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(SCM) 미국주식 중간거래 서비스 순차재개 한 10월 CPI(MoM +0.5%, YoY +2.1%) CPI 근원(YoY +2.0%) 미 9월 수출/입(MoM +0.3%, +0.3%) 무역수지, 제조업수주(MoM -1.3%) 내구재 주문[F]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(7227k) 일 10월 일본 은행 제조업 PMI[F]	5 MSCI 분기 리뷰, 지준일 MSCI 분기 리뷰 BOJ 9월 금정위 의사록 공개 미국 연방대법원 상소판세 적법성 재판 미 10월 ISM 서비스, 가격, 고용, 신규주문 S&P 글로벌 종합, 서비스업 PMI[F] ADP취업자 변동(-32k) 중 10월 Caixin 종합, 서비스업 PMI(52.5, 52.9) 유 9월 PPI(MoM -0.3%, YoY -0.6%) 10월 HCOB 종합, 서비스업 PMI[F]	6 BOE 통화정책회의 BOE 통화정책회의 :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.0%으로 동결 한 9월 경상수지, 상품수지 미 9월 도매채고[F] 미 ISM 서비스업 PMI 10월 Challenger Job Cuts(YoY -25.8%) 유 9월 소매판매(MoM +0.1%, YoY +1.0%) 일 10월 일본 은행 종합, 서비스 PMI[F] 호주 무역수지	7 미국 고용보고서 [기업] 이노텍 코스닥 상장 미 10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 시간당 평균 임금, 실업률 뉴욕 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(3.4%) 소비자신용지수 11월 미시간 소비자신뢰, 기대, 경기연망[P] 미시간 1년, 5~10년 인플레이션[P] 중 10월 수출/입(YoY +8.3%, +7.4%), 무역수지	8
9	10 유엔기후총회(COP30)(~21) :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점검 2025 AI 서밋 서울 앤 엑스포(~11) [채권] 미국 3년물 국채 입찰 [IT] 대만 10월 수출 데이터 [음식료] USDA 세계 곡물 수급 전망 유 11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(~5.4) 일 9월 섀넥지수, 동맹지수[P] 일 Boj 의견 요약 발표	11 중국 광군제 중국 광군제 10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[자동차] 중국 10월 판매 데이터 한 11월 1~10월 수출/입(YoY -15.2%, -22.8%) 미 10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(98.8) 유 11월 ZEW 서베이 예상(22.7) 일 10월 경기관찰조사 연망(47.1) 영국 실업률, 실업수당 청구건수 증감 독일 ZEW 경제심리지수	12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[채권]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2025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(~14) 2025 미국 임플란트 학회(~15) 한 9월 통화공급 M2(MoM +1.3%) 10월 실업률(2.5%) 일 10월 통화량 M2(YoY +1.6%) 독일 CPI 상승률(확정) MoM, YoY 미 MBA 구매지수	13 옵션만기일, 미국 CPI 한국 옵션만기일 [채권]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지스타 2025(G-STAR, ~16) 미 10월 CPI(MoM +0.3%, YoY +3.0%) CPI 근원(MoM +0.2%, YoY +3.0%) 유 9월 산업생산(MoM -1.2%, YoY +1.1%) 일 10월 PPI(MoM +0.3%, YoY +2.7%) 프랑스 3분기 실업률 영국 GDP 성장률 QoQ, YoY	14 미국 옵션만기일 [기업] 세나테크놀로지 코스닥 상장 한 10월 수입물가(MoM +0.2%, YoY +0.6%) 수출물가(MoM +0.6%, YoY +2.2%) 미 10월 소매판매, 소매판매 근원 PPI, PPI 근원 중 10월 소매판매(YoY +3.0%) 광공업생산(YoY +6.5%) 신규주택가격, 실업률(5.2%) 일 9월 3차산업지수(MoM -0.4%)	15 [월중] [OECD 경제전망 보고서] (1) OECD는 매년 6, 11월 회원국 경제전망, 3, 9월에 주요 20개국 중한 경제전망 발표 (2) 9월 중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.2%로 상향. 한국 성장률은 1.0% 유지
16	17 사우디 왕세자 뱀미 예정(~19) : 방위협정 체결 논의할 가능성 미 11월 뉴욕 엠파이어 제조업지수(10.7) 일 9월 설비가동률 광공업생산[F] 10월 전곡, 도교 백화점 판매 3Q GDP[P](QoQ +0.5%, YoY +2.2%) 이탈리아 CPI 상승률(확정)YoY, MoM 캐나다 CPI상승률 YoY, MoM	18 하나증권 리서치포럼(~19) 하나증권 2026 리서치포럼(금융시장 전망) :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, 해외주식 전망 : 2025 유럽 국제 에너지 박람회(~20) 2025 유럽 세미콘 유로파(~21) 2025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(~21) 날슨, 10월 미디어 게이저 월간 보고서 발표 미 10월 수입물가, 수출물가 광공업생산, 설비가동률 11월 NABH 주택시장지수	19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나증권 2026 리서치포럼(산업별 전망) FOMC 10월 회의록 공개 2025 미국 실리컨밸리 의료기기 박람회(~20) [채권]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 미 10월 주택착공건수, 건축허가[P] 유 10월 CPI[F](YoY +2.2%) CPI 근원[F](YoY +2.4%) 일 10월 무역수지, 수출/입(YoY +4.3%, +3.3%)	20 2025 한국 FISCION 금융보안 컨퍼런스 2025 K-UAM Confex(~21) 2025 중국 아시아 반도체재료·장비 박람회(~22) 미 10월 기준주택매매(MoM +1.5%) 미 FOMC 회의록 11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(~12.8)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유 9월 건설 생산(MoM -0.1%) 11월 소비자자기대지수[P] 독일 PPI YoY, MoM	21 한 10월 PPI(YoY +1.2%) 11월 1~20월 수출/입(YoY -7.8%, -2.3%) 미 11월 S&P 글로벌 제조업 PMI[P] S&P 글로벌 종합, 서비스업 PMI[P] 미시간 1년, 5~10년 인플레이션[P] 캔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유 10월 HCOB 제조업, 서비스업, 종합 PMI[F] 일 10월 전곡, 국내 CPI 11월 일본 은행 제조업, 종합, 서비스 PMI[P]	22 G20 정상회의(~23) G20 정상회의(~23) : G20 국가들 모여 글로벌 경제 등 안건 논의
23/30	24 [휴장] 일본(근로자의 날) EU-AU 정상회의(~25) : 유럽연합, 아프리카연합 간의 협력 정상회담 [채권] 미국 2년물 국채 입찰 2025 UAE 건축기자재 전시회(~27) 한 10월 소매판매 미 10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11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	25 MSCI 리밸런싱 MSCI 리밸런싱 : 11월 MSCI 분기 리뷰 결과 적용일 [채권] 미국 1년물, 5년물 국채 입찰 한 11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9월 FHFA 주택가격지수 S&P 코어로직 CS 20개 도시 11월 컨퍼런스보트 소비자자기대지수 달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, 경제연망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	26 Beige Book, 미국 PCE 연준 베이지북 공개 미 10월 도매채고[P], 소매채고 PCE 물가, 근원 PCE 물가 개인소득, 개인소비지수 신규주택매매 건축허가[F] 11월 MNI 시카고 PMI 3Q GDP, GDP 물가지수, 개인소비[S] 일 9월 섀넥지수, 동맹지수[F] 10월 PPI 서비스	27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[휴장] 미국(추수감사절) [한국 금융통화위원회] (1)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2.5%로 3연속 동결. 부동산과 환율 불안 등으로 동결 결정 (2) 11월 경제전망에서 성장을 상향 조정 가능성 존재. 안은의 금융안정 기초 이어질 전망 우주항공급, 누리호 4차 발사 중 10월 산업생산 유 10월 통화공급 M3 유 10월 실업률 11월 소비자자기대지수[F]	28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: 미 증시 초기 폐장(한국시간 오전 3시) 공명투자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한 10월 광공업생산 경기순환영 섀넥지수 일 10월 실업률, 소매판매 주택착공건수 광공업생산[P] 11월 도쿄CPI	29

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.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,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